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2013.03.13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우리나라 여성의 삶,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이것은 박근혜 정부 5년간 계속 따라다닐 질문일 것이다. 여성의 권익과 지위 강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함께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그리고 여성이 당당해지는 5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여성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여성의 날, 여성 노동의 현실은?

지난 3월 8일은 제 105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3월 8일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요구했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이 날은 이후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 불평등 개선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제연합(UN)은 1975년부터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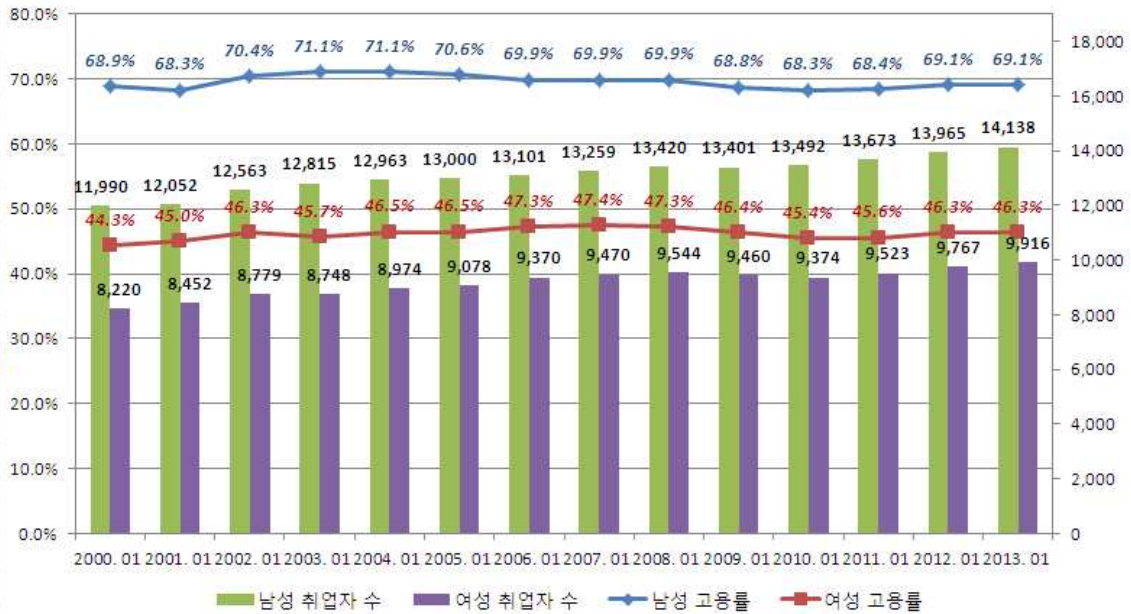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취임 후 맞는 첫 번째 여성의 날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지금도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라는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천만 여성노동자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여성 고용률은 2013년 1월 현재 46.3%로 남성 고용률 69.1%보다 20%p 이상 낮다. 이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그림 1] 2000년 이후 각연도 1월 성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단위 : %, 천명)



※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임금이나 사회보험 지원과 같은 처우와 관련된 노동시장 내 차별도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55만 9천원보다 100만 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역시 여성 임금근로자 8천 8백 원, 남성 임금근로자 1만 4천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직장으로부터 이를 지원받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여성보다 10%p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¹⁾.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의 원인은?

여전히 50%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성 고용률, 남성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월평균 임금 등과 같은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림 2]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래프로 그린 것으로 이는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지원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다음과 같음. 의료보험 : 여성 임금근로자 61.3%, 남성 임금근로자 76.4%; 국민연금 : 여성 임금근로자 59.4%, 남성 임금근로자 71.9%; 고용보험 : 여성 임금근로자 54.2%, 남성 임금근로자 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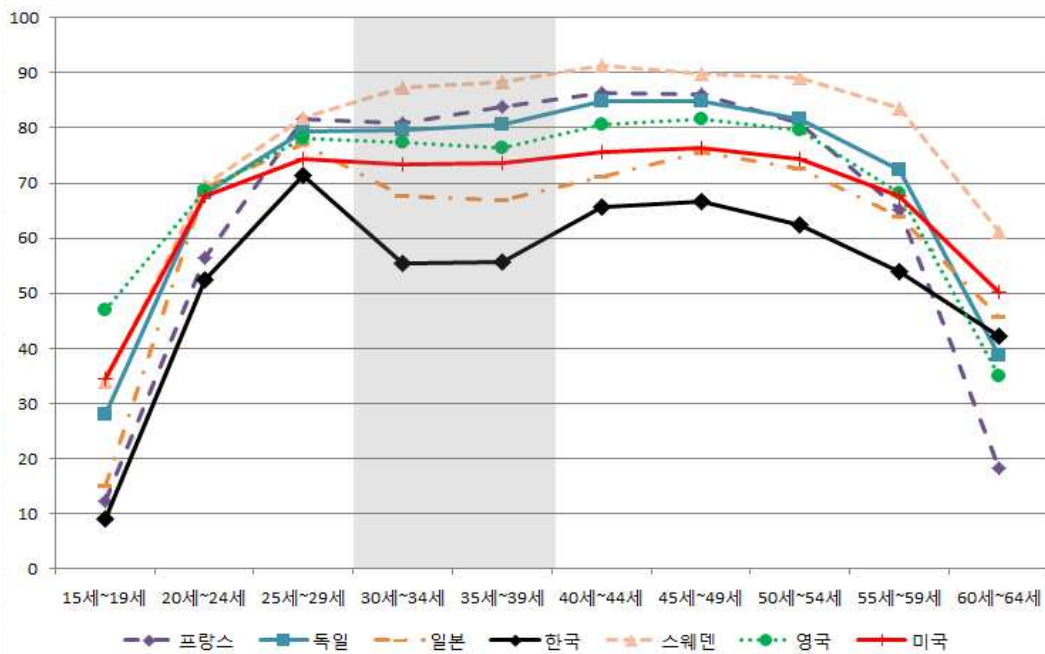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가운데, 특히 30대에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만을 기준으로 할 때 역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위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라 불리는 이러한 경향은 주로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 출산, 육아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의 요인이 되지 않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차별과 배제에 직면토록 하고 있으며, 낮은 고용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OECD 주요국가의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11년 현재 (단위 : %)



※ 출처 : OECD 통계자료 홈페이지

이와 같이 결혼,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가사와 아이를 돌보는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보는 사회·문화적 요인도 있겠지만, 기업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퇴사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의 많은 기업들에서 출산을 한 기혼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는 직접적인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이처럼 30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여성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문제와 결합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임금을 포함한 차별적 대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때 주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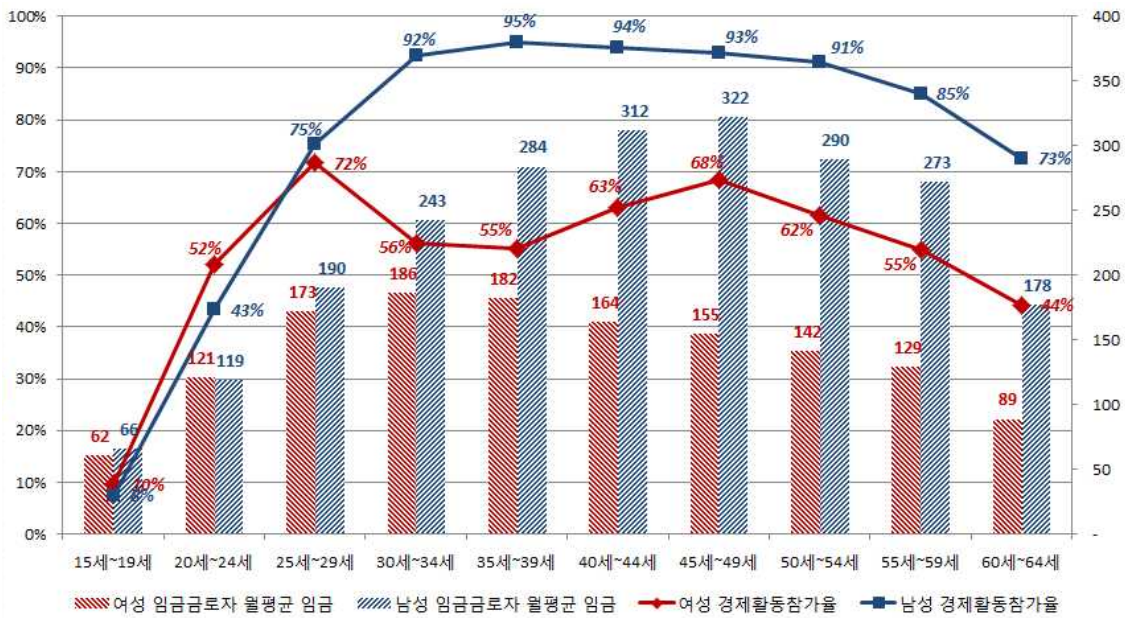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임금 수준이 낮고,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령대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남성과 확연히 다른 경력단절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력 단절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는 임금이 낮아지고 있음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 임금근로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경향은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계산해 보면²⁾, 경력단절 이전인 25세 이상 30세미만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38.2% 수준이지만, 경력단절 이후인 40대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61.6%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³⁾.

[그림 3] 연령대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단위 : %, 만원)



※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 추산

그리고 이와 같은 경력단절과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여성이 직면하게 되는 유리천장 역시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의 원인이 될 것이다. 유리천장이란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 막는 기업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용어로, 여성 직장인들의 승진을 가로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가리킨다. 이는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음으로써

2) 여기서는 고용형태와 함께 종사상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산출하는 노동계의 통계를 따르고 있음. 자세한 것은 “김유선 (201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참조할 것

3) 40세이상 45세미만 여성임금근로자로 제한할 경우에도 비정규직 비중은 59.5%로 높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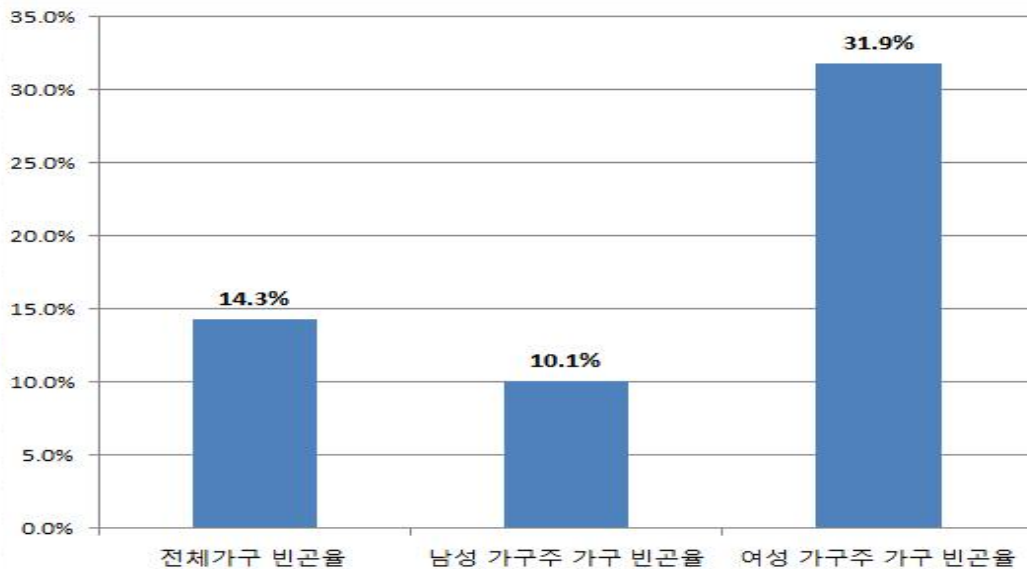
여성의 임금을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열심히 일해도 고위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결과 : 빈곤의 여성화

이상에서 살펴본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이라는 노동시장 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빈곤의 여성화라는 여성 빈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란 빈곤의 절대다수가 여성이 되어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족구조의 변화(핵가족화, 이혼),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차별(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복지제공에 있어서의 개별여성의 배제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국가의 공적이전소득 지원 수준이 미미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노동의 현실이 여성 빈곤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1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빈곤인구의 규모를 구해보면⁴⁾, 전체 인구 중 14.3%가 빈곤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남성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에 속한 인구의 빈곤율은 10.1% 밖에 되지 않지만, 여성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에 속한 이들의 경우 31.9%가 빈곤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가구주 성별에 따른 상대빈곤율 (단위 : %)



4) 여기서는 2011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만을 가지고 1인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분배지표를 구하고 있음. 통계청과 동일한 방식(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구하고, 전체 인구를 가중치로 해 중위소득을 구함)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을 도출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경우 1인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분배지표를 구할 때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함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청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남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이런 여성 가구주 가구의 높은 빈곤율의 원인으로는 우선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그 가구의 구성원들은 빈곤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여성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역시 그 가구는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빈곤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working poor)에 해당되는데, 여성 가구주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빈곤 상황에 있는 이들의 비중은 12.8%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가구주 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근로빈곤에 처한 이들의 비중 5.0%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여성노동자의 낮은 임금이 여성 빈곤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정책이 필요

“빵과 장미”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던 미국 여성노동자들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의 여성 노동자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경제성장은 사람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삶을 제공했다. 하지만 성장이 여성노동자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높은 비정규직 비중, 유리천장과 같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은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낮은 임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빈곤의 여성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내 여성이 처한 현실은 이처럼 차별, 불평등을 넘어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임기 후반 들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이야기하며 출산과 육아의 책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과 출산휴가제도를 이전보다 확대 시행하는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이 처한 현실을 개선시키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여성 고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경력단절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부 정책 역시 이 책임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에 있어 사회의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가구 내 남성이 그 책임을 같이 지도록 하는 “양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이와 함께 여성 스스로 일·가정 양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단기 시간제 일자리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여성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여성 스스로 경력단절이 아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우리나라 여성의 삶,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이것은 박근혜 정부 5년간 계속 따라다닐 질문일 것이다. 여성의 권익과 지위 강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함께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그리고 여성이 담당해지는 5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

2013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3월 13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김수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